

광주극장에서 라이브 공연과 신작 영화까지

CULTURE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광주극장에서 프랑스 뮤지션의 라이브 공연과 다채로운 장르의 신작 영화가 선보인다.

먼저 공연과 영화를 함께 감상하는 음악축제 ‘음악으로 통한다’가 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음악으로 통한다’는 광주극장이 2007년부터 진행해온 대표 행사로, 클래식, 상송,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서 주목받고 있는 해외 뮤지션을 초청해 라이브 무대 후 음악 영화를 상영한다.

올해는 광주프랑스문화원과 공동으로 프랑스 팝, EDM과 클래식 음악을 조화롭게 결합하며 맑은 목소리와 중독성 있는 가사로 주목을 받고 있는 프랑스 신예 아티스트 MADELEINE(마들렌)의 무대를 꾸민다.

마들렌은 오늘날 전자 비올라에 전자 효과음을 사용하는 최초의 음악가 중 한 명으로, 100회 이상의 콘서트와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벤자맹 비올레나 베나바르와 같은 유명 프랑스 아티스트들의 오프닝 무대에도 섰다.

이날 공연에서 마들렌은 비올라와 피아노, 기타, 우쿨렐레 등 네 가지 악기를 사용해 연주를 선보인다. 깊이 있는 가사와 대중적이면서도 우아한 음악으로 국내 팬들에게 감각적인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에 이어 오후 5시에는 한 편의 영화 같은 기억담구 드라마로 많은 이들의 인생영화로 꼽히는 실뱅 쇼메 감독의 ‘마담 푸루스트의 비밀정원’이 상영된다.

특유의 섬세하고 환상적인 영상에 뮤지컬을 보는 것만 같은 다채로운 음악 스코어가 영화의 재미를 더한다.

앞서 21일에는 영화를 중심으로 블루레이, 도서, 음반 등을 기획 및 제작하는 플레인아카이의 영화 에세이집 시리즈 ‘PA CAT BOOKS’의 첫 번째 책 ‘오래전, 오래된 극장에서’의 저자 김신형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가 오후 4시에 예정돼 있다.



영화 '그을린 사랑' 스틸컷

내일 ‘아마데우스’ 40주년 재개봉

21일 에세이집 ‘오래전...’ 북토크

22일 음악축제 ‘음악으로 통한다’

프랑스 싱어송라이터 마들렌 투어



프랑스 뮤지션 마들렌

이날 북토크는 책의 표지가 될 정도로 김신형 작가가 가장 애정하는 영화 중 한 편인 정재은 감독 ‘고양이를 사랑해’ 상영 후 진행된다. 이서영 시인의 사회와 함께 특별 게스트로 ‘형거’, ‘별세’ 등 다양한 독립영화를 통해 존재감을 발휘해온 김세벽 배우가 참석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영화도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다. 먼저 19일 개봉하는 ‘아마데우스 오리지널 리마스터링’은 신의 사랑을 받은 천재 모차르트의 죽

음에 얽힌 총격적 진실을 담은 영화로 40주년을 기념 4K 디지털 복원돼 재개봉한다. 57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감독상 및 8개 부문을 수상했다.

같은날 개봉하는 ‘풀’은 마약으로 금기시되는 대마의 생태적인 가치와 대마를 재배하고 그 가치를 복원시키려는 인물들을 담아냄으로써 법적, 사회적 금기인 대마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 다큐다. 금기의 식물 대마의 씨를 뿌리고 재배하는 사람들을

가감없이 담아내는 용기있는 시도가 돋보인다.

전 세계적 팬덤의 사랑을 받았던 영화 ‘홀 미 바이 유어 네임’의 감독 루카 구아다니노의 신작 ‘퀴어’는 20일 개봉한다.

1950년대 멕시코시티, 마약과 알코올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즐기던 작가 리카 아름다운 청년 유진에게 빠져들면서 시작된 사랑의 에필로그로, 보다 고혹적인 사랑을 그려낸 영화다.

윌리엄 S. 버로스의 고전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캘리포니아’의 각본가인 저스틴 커리츠케스, 의상 디자이너 조나단 앤더슨이 참여했고, ‘007’ 시리즈로 남성적인 매력을 극대화했던 배우 다니엘 크레이그가 이제껏 선보인 적 없는 파격적인 변신을 해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25일 개봉하는 ‘그을린 사랑’은 어머니가 남긴 두 개의 편지 속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나는 두 남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둔’ 시리즈와,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등 명작을 탄생시킨 드니 빌뇌브 감독의 초기작이다. 제83회 아카데미상 외 국어영화상 후보, 제35회 토론토영화제 최우수 캐나다영화상 수상 등 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극찬을 이끌어냈다.

같은날 개봉하는 ‘모네의 수련. 물과 빛의 마법’은 물을 너무 사랑해 평생 생강 근처 지베르니에 살며 정원을 가꾸고 사물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탐색한 인상주의의 창시자 클로드 모네의 삶과 예술세계를 그린 다큐다. 로스 킹의 베스트셀러 ‘광기의 마법: 클로드 모네와 수련 그림’을 참고 삼아 모네의 실제 정원에서 촬영한 작품으로, 오르세와 오랑주리, 마르모탕 미술관에 소장 및 전시되고 있는 인상주의의 전제화가 모네의 결작과 예술에 대한 집념을 보여준다.

‘음악으로 통한다’ 입장료는 3만원, 당일 현장 구매는 3만5000원이며, 광주극장 CMS후원회원은 2만원이다. 문의 062-224-5858.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지리산 영명한 문학정신 고취

‘제20회 지리산문학상’ 30일까지 접수

지리산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지리산문화회와 기간 ‘상상인’ (발행인 전해진 시인) 공동 주최로 ‘제20회 지리산문학상’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일반인과 기성시인(기 수상자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시(詩) 50편 이상을 오는 30일까지 이메일(jirisan2025@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희망자는 응모 시를 50편으로 추린 뒤 시집 발간 형식(가제, 약력, 본문 1~4부 편상)으로 원고를 접수해야 한다. 심사는 7월 중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총상금은 1000만원이다.

시상식은 올해 지리산문학제 축제(경남 함양군 함양예술회관) 기간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리산문학상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지리산은 오랜 기간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자 영혼이 깃든 영산이었다. 현대사의 아픔과 상흔을 간직한 지리산은 지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줬다”면서 “지리산처럼 높고 영명한 문학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니 국내외 문인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응모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발표는 제간 ‘상상인’ 올해 가을호에 게재되며 수상시집은 ‘상상인’ 기획시선으로 발간될 계획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국악무대’ 2차 공모 참여하세요

방송 제작·편성·내달 6일까지 접수

국악방송(사장 원만식)의 대표 공연·중계 프로그램 ‘국악무대’가 전통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연실황중계 국악무대’ 2차 공모를 7월 6일까지 실시한다.

‘국악무대’는 우리 전통 문화예술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국악방송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매년 국내 유수의 국악 공연을 고품질 영상으로 제작해 방영한다.

이번 2차 공모는 신진 및 기성 전통예술인의 공연 실황을 방송 콘텐츠로 제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선정된 공연은 국악방송의 전문 제작진이 현장에서 촬영해 영상으로 제작하며, 완성된 콘텐츠는 국악방송 TV 채널을 통해 전국 시청자에게 방송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1차 공모에서는 심사를 거쳐 서영호·이미희(서울하트춤)·조용수·이서·진주서립국악관현악단·양희진(해금연구회) 등 총 6개 단체의 작품이 선정됐다.

공모 신청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한다.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국악방송 누리집 내 알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고령화 사회 어느 노부부의 삶과 사랑

극단 Y ‘늦은행복’ 26~28일 미로극장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선정작

고령화 사회 노년의 삶을 깊이있게 다룬 연극 한편이 무대에 오른다.

극단 Y의 연극 ‘늦은행복’이 26~28일 평일 오후 7시30분과 토요일 오후 3시·6시 광주 동구 미로극장 2관에서 열린다.

‘늦은행복’(작·연출 김민호)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노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 사회 노년의 삶에 대해 깊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이다.

‘한없이 내어주고도 더 줄게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이 시대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과연 행복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연극은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감정들을 고스란히 무대에

펼쳐 보임으로써 노년의 삶을 들여다보고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치매에 걸려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와 암에 걸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남편이 매일 함께 집 앞 공원에 나가 설레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며 느끼는 순애보적인 사랑을 그렸다.

젊은 시절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낳아 양육하며 살아온 풍파의 시간을 지나 마침표를 향해 가는 듯 쓸쓸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부부는 마침내 행복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깨닫고 희망을 되찾는다.

작품은 ‘2025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지난해 일본 오사카 ‘한일연극제’ 초청 공연작으로 이미 오래 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도 큰 관심과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임준혁 프로듀서는 “노인 문제가 심각한 요즘이다. 이번 작품은 자식들이 있어도 부모를 부양하지 못해 홀로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고질적인 질병

이나 굶주림에 쉽게 노출돼 인간의 존엄성마저 무너져버린 노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극단 Y 관계자는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늘어났지만 그에 따른 노년에 대한 사회복지는 뒤따라가지 못한다. 대가족이 붕괴되고 자식과 떨어져 지내야하는 노부부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대에는 박규삼, 윤미란, 정순기, 김경욱이 출연한다.

입장료는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자격증 제시 시 현장 관람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추상성 더한 활자’ 양화 기법 구사 재해석

민화의 문자도를 서양화 기법으로 표현해온 김수연 작가가 2년여 만에 제8회 개인전을 지난 2일 개막, 오는 8월 29일까지 전남대 옹보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갖는다. 출품작은 구작과 신작 절반씩 총 40여점.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선보였던 ‘Happy Life 1’전을 심화시킨 것으로 조금 더 추상성을 강화시킨 이번 전시는 행복(幸福)을 비롯해 용(龍), 운(雲), 봉(鳳) 등의 한자어를 전서체로 재구성, 캔버스에 유화로 표현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가의 근작들 역시 한자나 문장을 전서체로 재구성한 것으로, 화선지에 먹으로 그리는 기존의 틀을 탈피해 캔버스에 서양화 재료와 기법을 활용해 작업하기 때문에 광장히 독창적 조형 어법으로 이해된다.

그의 이런 전서체 재구성 방식은 유년기 고향



‘용1’

신안의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새발자국을 그렸던 기억들이 투영된 결과물로 읽힌다.

작가는 예로부터 전서(篆書) 가운데 새발자국 형태의 조적체(鳥迹體) 등 한시를 공부했던



‘용2’

기억이 오늘날 자연스럽게 기법적으로 연결된 듯 보인다.

작가의 작업은 밑작업을 끝낸 캔버스에 돌가루와 야교를 섞어 나이프로 덧칠하고 문지르는 과정을 거쳐 색을 입혀간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김수연 제8회 개인전 ‘Happy Life 2’ 8월 29일까지 전남대 옹보관 전시실

오래 테마였던 용(龍)의 변형과 변주를 더해 덕(德)과 화락(和樂), 흥(興) 등의 문자를 재구성한다. 거기에 모노톤 또는 파스텔톤의 색채를 덧입혀 활자를 조형화한 이미지가 마치 살아 꿈틀대는 듯한 느낌으로 그의 화풍은 다가온다. 특히 논리적이거나 묘사충실에 반해 무의식적 전개를 하는 듯하지만 폭발적인 힘에 의해 분출되는 감성을 가리지는 못한다.

출품작들은 민화처럼 원근법이나 사물간의 상호 비례나 입체감, 공간감이 무시되는가 하면, 기하학에 가까운 정도의 좌우대칭형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수연 작가는 국립광주박물관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7회의 개인전 및 초대전, 한-중 현대미술교류전, 한-베트남 프랜즈십특별전, 광주 아트페어, 부산아트페어 등 비중 있는 전시회에 다수 참여한 바 있다.

현재 아트포럼 인터내셔널과 대한민국남부현대미술제, 광주·전남현대미술가 아카데미 등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개막식은 19일 오후 4시.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결그룹 뉴진스의 ‘뉴 진스’

스포티파이 4억 스트리밍 기록

결그룹 뉴진스의 ‘뉴진스’(New Jeans)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4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고 소속사 어도어가 17일 밝혔다.

뉴진스가 2023년 발표한 두 번째 미니앨범 ‘갯 업’(Get Up) 수록곡 ‘뉴진스’는 지난 15일 기준 누적 4억24만5638회 재생됐다. 이는 뉴진스 사상 통산 여섯 번째 4억 스트리밍곡이다.

‘뉴진스’는 UK 개러지 리듬과 저지 클럽 리듬을 오가며 독특한 구성이 인상적인 노래로, 팀 이름을 활용한 참신한 가사와 세련된 멜로디 라인이 특징이다. 미국 유명 에니메이션 ‘파워퍼프 걸’과 협업한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도 공개 당시 화제를 모았다.

뉴진스는 8억회 이상 재생된 ‘OMG’ 등 스포티파이 1억회 이상 스트리밍곡을 총 15곡 배출했다. 데뷔 이래 발표한 전곡의 스포티파이 합산 누적 스트리밍 횟수는 63억회를 넘겼다. 연합뉴스

